

여성가족부·교육부

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‘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’를 실시하고,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개인·집단 상담,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진단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K-척도, S-척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개발한 청소년 도박문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인터넷,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와 사이버 도박 문제 정도를 측정합니다.

※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세부안내

대상	척도	진단 결과
초등 1년(보호자)	스마트폰 이용습관 관찰자 척도 9문항	일반군/관심군
초등 4년	· 인터넷 과의존자가진단(K척도)15문항, · 스마트폰 과의존자가진단(S척도)15문항, · 사이버도박 문제 자가진단 10문항	각 척도별 일반군/주의군/위험군
중등 1년		
고등 1년		

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, 조사결과 주의를 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님(보호자)의 동의를 거쳐 건강한 미디어 사용방법 지도 및 전문기관의 상담·치료,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최근 자녀양육에서 힘든 점으로 자녀의 미디어사용 증가가 꼽힐 만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.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4월 중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. 조사 결과, 미디어 과의존 주의, 위험 사용자군에 해당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“상담·치료 지원” 사항 안내 및 “상담·치료 서비스 제공 동의서”를 보내드릴 예정이며(가정통신문 또는 문자메시지), 사이버 도박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서비스가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. 또한 검사결과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4. 03. 26.

전 북 여 자 고 등 학 교